第七千八百八十八號 (1945·11·21 第三種郵便物認可) (1948·5·18 許可番號第二五號) (木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千二百八十一年十一月四日 (日刊)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局 ②三三五八 ②三三八四
月定購讀料 貳百圓

國府危機에 直面
滿洲敗戰財政失敗로

【上海三日發UP고려】南京發報道에 依하면 中共軍의 滿洲占領에 依하여 惹起된 政治的危機를 處理하기 爲하여 三日緊急同議가 開催되리라 한다 一部『옵서—버』는 經濟的破局으로 말미암은 二閣僚의 辭表提出과 敗戰의 結果로 蔣政府는 崩壞할지 도몰른다고 말하였는데 翁文灝首相 王雲五財相은 二日正式으로 立法院에 辭表를 提出하였다 이에 앞선 報道에 依하면 府總統은 辭表受理를 拒絕하고 時局이 危急한 동안 留任할 것을 要請하였다 한다 前記二氏의 辭職理由는 通貨改革計劃의 失敗라 한다

中共軍、太原에 肉薄
翁內閣總辭職說이 流布

【南京三日發INS合同】「二日山西省首府太原은 二「마일」地點에 中共軍이 迫頭하였다는 消息이 傳하여지고 있는이때 國民政府首相 翁文灝氏가 辭表를 提出하였고 同時에 財政部長 王雲五氏도 國府側의 戰敗와 아울러 經濟破綻의 責任을 지고 蔣總統에게 辭表를 提出한 바 있어 蔣總統이 辭表를 受理할런지는 疑問인데 한편 翁首相은 全閣僚의 辭表를 모아서 提出하리라는 說도 流布되고 있다 한편 政府側代辯者는 中國本部에서 第一가는 造兵廠이 있는 太原이 中共軍에게 完全包圍를 當하고 있는 事實을 認定하야『事態의 重大性』을 强調하였으며 太原市는 二百萬이 中共軍의 攻擊下에 노혀있으며 市城外겨우 二「마일」地點에서 戰鬪가 벌어지고 있는데 防備軍은 約百萬의 國府軍으로 山西省主席 閻錫山將軍이 指揮하고 있다 한다

知事廳長會議
三日下午부터 開會

第二回道知事警察廳長會議는 三日午後三時부터 中央廳第一會議室에서 李大統領 國務總理以下 各部長官臨席下에 開催되어 豫定事項에 對한 討議가 開始되었는데 四日은 午前九時부터 再開하리라 한다 (寫眞은 會議光景)

社說
緊急한 叛亂收拾對策

一

우리는 平和를 사랑한다 모든 改革의 方法은 平和的手段에 依하여야 할것이다 民主主義의 原理와 立憲議會政治制度가 어데까지나 國民의 輿論을 尊重하며 合法主義를 政治의 基底로 하는것도 社會의 發達과 改革을 平和的方法에 依하여야 한다는데 本意가 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번 麗水 順天을 中心으로 全南一帶에 벌어진 叛亂事件에서 보는 同族相殘의 悽慘한 悲劇에 直面하야 人命과 財貨의 損失은 말할것도 없고 우리 歷史에 그러고 世界의 耳目에 남긴 不快한 不祥事의 記錄에 아득한 느낌을 禁할수 없는거니와 問題는 앞으로 局地的叛亂軍의 鎭壓에서 다시 叛亂地帶의 附和雷同한 多數民衆에 對한 處理와 不安動搖하는 民心의 全般的收拾이 適切迅速하여야할 것이 더큰問題일것이니、이때에 政府와 國會當局은 豁然大覺하여 民心의 歸依할바를 明快히 할것과 民心의 動向을 明察할것이 緊急할것이다、그러나 事件發生以來 國務總理、內務部等 政府의 首腦部가 現地까지 踏査하고 있으나、事件의 全貌와 그 收拾對策에 對한 政府當局의 統合된 具體的인 確乎한 方針을 들을수 없었고 또 國會가 이에 對處할 具體的인 立脚點에서 政府를 鞭撻하며 國民과 더부러 呼吸을 一致하여 難局收拾의 協力을 求하는 緊迫과 誠意의 吐露를 듣기어려움은 實로 遺憾이다。

二

叛亂現地에는 戒嚴令이 實施되었다고 하나 戒嚴令의 內容은 무엇이냐 戒嚴令은 戒嚴法에 依하여야 할것인데 戒嚴法이 아직 制定을 못보고 있다 事態의 性質에 따라서는 大統領令으로 얼마던지 緊急措置가 될것이다 그러나 그 內容은 時刻의 餘裕를 두지않고 國民에게 周知시켜야 하며 또 國會의 同意를 얻어야 할것을 憲法이 命하는바이다 그 法理의 根據는 戒嚴令下에는 憲法의 重要한 部分이 停止되기때문이니 비록 憲法과 一般法의 一部가 停止된다고해도 어데까지나 秩序를 法에 依하야 維持하여야 하고 또 그러케 하여야만 된다는데 法治國家의 平和的 合法主義의 大原則이 있는것이다 [illegible]바 麗水에서 叛亂에 加擔했든 中學生七十餘名의 銃殺刑은 果然事實인가 지금實施되고 있는 戒嚴令의 內容을 알수 없음으로 戒嚴令實施의 實狀如何도 여기서 論評할수 없으나 憲法에 依하건대 國防軍에는 軍自體의 軍法會議規定이 없다 그러므로 軍이 비록 戒嚴의 責任과 權限을 가졌다고 하더래도 戒嚴令下의 裁判機構를 가것는지 우리는 憲法의 條項만으로는 推斷할길이 없다 戒嚴令의 實施라고 해도 一般國民의 裁判에 關하는 限 司法部裁判에 移除할것이 常例일것이고 또 多數의 叛亂犯의 處理를 생각할때 應當司法部의 判事 檢察陣의 大量援助를 얻음이 또 必要할點은 없겠는가 直接作戰과 叛亂犯의 處理와는 크게 區別되여야 할것이다、이에 政府는 事態收拾에 處理와 民心鎭撫는 不可分의 關係를 가질것인 點에 크게 着目하야 民心安定策을 크게 求하여야할것이다。

(以下 畧)

四區域에 補選
國議員知事轉出로

國會는 開院當時 一九八名議員의 在籍으로써 構成되였거니와 그後 李承晩博士의 大統領就任을 비롯하여、李南圭、鄭顯模、申鉉敦、文時煥各議員의 道知事轉出로 因하여 國會在籍議員은 一九三名으로 되였는바 지난卅日 東大門甲區 洪性夏氏가 當選되여 補選實施로써 同氏는 二日 國會本會議부터 正式出席하게 되였음으로 現在國會在籍議員은 一九四名으로 된것이다 그리고 道知事로 轉出한 四議員의 出馬區域에도 急速한 時日內에 補缺選擧를 實施하기로 되었다 한다 其他國會議員中 國務委員에 就任한 議員은 尹致暎、李允榮、尹錫龜、曺奉岩、金度演、許政、任永信等 七氏인데 國會議員은 國務委員을 兼任할수있음으로 國會在籍員數에는 何等變動이 없다

中國의 二四%占領
毛澤東氏共情에 勝利報告

【부카레스트三日發AP合同】中國 共産黨黨首 毛澤東氏는 一日 東歐共産主義國家에 報告하는 形式으로『콤민포름』公報에 中國共産黨의 勝利記錄을 次次的으로 發表하였는데 그要旨는 大略다음과같다 中共軍은 七十萬七千平方「마일」의 地域을 占領하였는데 이것은 全中國國土 面積의 二四·五「퍼—센트」에 該當하며 共産黨統治下의 人口는 一億六千八百萬으로서 全中國人口의 三十八「퍼센트」에 該한다 그리고 中共軍은 國府軍約二百六十四萬名을 捕虜로하였으며 또 五百八十六個의 都市即全中國都市의 二十九「퍼—센트」는 共産軍의 手中에 있다 이제는 約一億의 人口가 占領하고 있는 地域에 걸처 土地改革을 實施하고 地主나『쿨락』(富裕한農民)의 土地를 全部沒收하였다 그리고 中國共産黨은 一九四五年에 一百二十萬의 黨員을 갖었든것이 現在는 三百萬의 共産黨員을 갖게되였다

美、對中國援助
一部에서 積極說主張

【뉴—욕三日發AFP】合同】美國政界가 一般的으로 最近의 中國事態에 對하야 憂慮하고 있는것은 事實이나 한편으로 有力者側의 一部는 南京政府에 對하야 더욱 積極的援助를 해야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中에도 國會特別調査官『윌니암·밸리트』氏는『美國大統領選擧에 共和黨이 勝利하게되면 故『루—즈벨트』大統領은『테헤란』과『얄타』會議에서 友邦中國을 無視하였기 때문에 最後 蔣介石氏에게 蹉跌을 준것이다 中國共産黨이 滿洲를 占領하였다는 것은 美國으로서는 二億『달라』의 軍備를 損害當하고 있는것이다』라고 力說하고 同一한 有力者側에서는 太平洋方面總司令官『맥아더』元帥를 南京政府의 顧問大使로 任命할것을 主張하였다

三次戰誘發
滿洲事態
中國紙東北事態에 論評

【南京二日發中央社고려】中國中央日報社說은 滿洲에서의 事態發展에 關하여 다음과같이 論評하였다 歷史는 反復하고 있다 國際共産黨 및 武裝한 第五列에 依하여 釀成된 東亞地帶의 戰鬪는 第三次世界大戰의 始初가 될 憂慮가 있는것이다 萬若十七年前에 聯合國側이 日本의 侵略을 防止할 先見之明이 되었드라면 第二次大戰의 悲劇은 없었을것이며 따라서 聯合國側은 數百萬의 人命과 莫大한 財産의 損失을 보지않았을것이다 世界는 尙今 滿洲戰爭이 敎示하는 貴重한 敎訓을 알지못하고 있다 現在 英佛 및 美國政治家들은 第三次大戰의 到來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理解할수 없는것은 그들이 實際로 發生하고 있는 事態를 悲嘆하면서도 이에 對하여 拱手傍觀하고 있는것 같다는 點이다 第二次大戰이 發生된것은 民主主義諸國家가 無爲政策한 必然的인 結果이다 歐洲樞軸國들은 日本의 侵略이 阻止되지않았다는 事實에 依하여 鼓舞되었으며 亦是進軍을 始作한것이다 이것이 第二次大戰의 發生理由이다 中國共産黨이 國際共産黨과 關聯이 없다고 생각한 無智한 世界人士들은 中國으로 하여금 同黨을 合法的政黨으로 承認시키게 하였으며 그들과 再三 和平交涉을 行하게 하야 그들을 强力히만들어 現在의 悲慘한 狀態를 招來시키게 한것이다 그리고 이 無智한 人士들은 現在狀態에 對하야도 確固한 政策이 있는것같이 보인다 中國共産黨은 滿洲地區에서 機械 物資等을 掠奪하고 所謂東北民主軍을 創設한 某國의 道具인것이며 現在華北地區를 威脅하고 있는 中國共産黨은 日本의 侵略者가 만든 괴뢰人物과 別差異가 없는것이다 國際共産黨의 擴張政策을 取하지않는다면 第三次大戰은 確實히 오고야 말것이다

美大統領選擧
三日下午結果判明

【뉴—욕三日發UP고려】世界最重大審判이 二日實施되는터이며 美國大統領候補者에 對한 判決을 내릴것이다 이날 四千七百萬乃至五千萬의 男女自由市民이 投票한다 一部地區에는 비가올듯하나 全國的天氣豫報는 大體로 晴明할것이라는데 이는民主黨 其他好運을 期待하는人士에 有利할것이다 投票는 새벽에 大西洋沿岸에서 開始되고 日出에 따라서 西方으로 移動되었다 最初의 重要投票終了는 午後四時『켄터키』州에서 있을것이며 午後十一時에 最終投票는『워싱톤』에서 行할것이다 그間에 新聞協會와 各新聞들은 各州를 代表하는 約八百萬投票를 調査할것이다 이 選擧에서 勢力이 極히 伯中치않으며 大勢는 午正頃에 判明될것이다 그런데 人氣投票나 觀測은 當年四十六歲의『뉴—욕』州知事『듀이』氏가 白亞館主人公이 되리라고 보고있다『트루만』氏는 民主黨選擧戰에 있어 出發이 늦었으나 快速强靭하게 運動을 끝내었다 大統領立候補者는 總十一名인데 其中若干名은 正式으로 立候補하지 않고 記名投票를 바라고있다 이날 投票에서는 또한 三十二名의 上院議員과 四百三十二名의 下院議員 三十二名의 知事及其他無數官吏를 選出할것이다 그런데 一般的으로는 共和黨이 下院을 繼續制覇할 것으로 있오나 上院制覇의 與否는 不明하다

二日下午現在投票結果

【뉴—욕三日發UP고려】二日 午後八時三十分現在
트루만 六五七、〇六五
듀이 五四五、七八一
머—몬드 九四、五七五
월레스 七、七八三
그리고 午後七時五十五分 現在結果는 如左하다
듀이 三四二、八九八
트루만 四二七、八四六
월레스 四、〇三〇
이때『듀이』氏는 百十四의 選擧票를 갖인 十二州에『트루만』氏는 百八十二의 選擧票를 갖인 十四州에서 머—몬드氏는 二十八選擧票를 갖인 二州에서 各其優勢하다 그런데 當選에는 二百六十六의 選擧票를 갖어야 한다

美五十八機動艦隊靑島着

【호노룰루二日發UP】太平洋艦隊司令長官렘제提督은 아래와같이 發表하였다『第五十八機動艦隊는 一個月前의 豫定에 依하여 今般靑島에 到着하였다 同部隊의 靑島入港이 國民政府의 危機와 때를같이한 것은 偶然의 一致이다 앞으로 華北의 美人을 撤退시키는데 있어서 海軍船舶을 使用하고 안하고는 C·뱃저提督에게 달려있다』

人民軍의 動向發表後
大邱에서 叛亂이 發生

【서울三日發INS合同】二日政府側發表에 依하면 지난번 麗水叛亂事件에 繼續하여 大邱에서 새로운 騷動이 發生하였다고 한다 政府代辯者는 同騷動의 發生은 北韓에 있는 蘇聯의 後援下에 있는 人民軍 二萬名이 南韓에 侵入할수있는 地點에 移動하였다고 非難한後이며 이에 關하여 南韓國軍司令部는「九十二名의 警備隊員은 共産主義者라고 하는 一名의 國軍軍紀兵을 殺害한 後 二日저녁 大邱國軍當局에 降伏하였다」고 發表하였다 한편大邱에서는「國軍側 一名의 軍紀兵이 警察署를 占領하려고 騷動을 計劃한 叛亂側 特務上士一名을 逮捕할려고 할때 射殺되였다」고 發表하였다 그리고 政府代辯人 金東成氏는 北韓人民軍을 非難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北韓人民軍은 南韓을 攻擊할수있는 距離에 集結하고 있으며 同人民軍의 移動은 明白히『유엔』이 美軍撤兵을 命令할時에 南韓에 侵入할수있는 豫備工作을 하고 있다 그러나 當地官邊側에서는『유엔』이 美軍撤兵을 곧 命令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蘇聯式訓練을 받은 一萬名의 北韓人民軍은 三八度線以北 三哩地點인 海州에 到着하였으며 또 萬名의 人民軍은 三十八度線以北三十八哩地點인 鐵原에 到着하였다

八面鋒

十一月二日 九十四次本會議에서 政府側과 國議員間에 激論이 벌어젔다▲議員側·政府에 對한 政策의 軟弱과 亂發을 痛罵에 尹長官이 火怒▲가로되 尹長官을 攻擊하는것은 人身攻擊이고 당신네들은 大韓民國을 信奉하느냐는 것이다▲대체 이런경우에 是非는 또如何間에 당신네들은 大韓民國을 信奉하느냐는 말은 그 意味가 매우 알중달송하다▲政府를 攻擊하는것은 大韓民國을 攻擊하는것이란것도 같고 政府를 反對하는것은 大韓民國을 反對하는것이란것도 같고…▲그러면 다음과 같은 愚問을 내어본다—政府의 大韓民國인가? 大韓民國의 政府인가?▲讀者여 賢答하라。

各道府郡農會議員當選者姓名 (其二) (前回의續)

京畿道

서울市 永登浦區 盧壯愚 西大門區 李鼎浩 龍山區 朴元信 麻浦區 [illegible] 東大門區 高允源 城東區 朴基煥

楊州郡 始興郡 加平郡 延白郡 富川郡 金浦郡 陽平郡 利川郡 開豊郡 長湍郡 平澤郡 坡州郡 高陽郡 江華郡 仁川府 廣州郡 甕津郡 抱川郡 安城郡 開城府 水原郡 驪州郡

[illegible]

忠淸南道

大田府 大德郡 燕岐郡 公州郡 論山郡 扶餘郡 舒川郡 保寧郡 靑陽郡 洪城郡 禮山郡 瑞山郡 唐津郡 牙山郡 天安郡

[illegible]

慶尙南道

釜山府 馬山府 晋州府 晋陽郡 宜寧郡 咸安郡 昌寧郡 密陽郡 梁山郡 蔚山郡 東萊郡 金海郡 昌原郡 統營郡 固城郡 泗川郡 南海郡 河東郡 山淸郡 咸陽郡 居昌郡 陜川郡

[illegible]

全羅南道

光州府 光山郡 潭陽郡 谷城郡 求禮郡 光陽郡 順天郡 高興郡 寶城郡 長城郡

[illegible]

(二面續)

國軍一部가 大邱에서 叛亂
市內突入을 擊退
三隊의 叛軍捕虜三百

【三日大邱支局電話】二일 오후二시경 대구 국군제六연대일부가 반란을이르켰다 즉오후二시경 六연대 특무상사 박(朴)중진을체포하려든 군기대조(曹)성필외二명을 전기 특무상사가 사살한다음 병사들이동원하여 통신망을 절단한다음 三대로갈이여 시내에드러온후 각처에서 경찰과교전 혹은 미군과한 교전하고 一대는 동군열자로 기천(技川)역방면으로 도피하고 일대는 수성(壽城)방면으로 도피하였으며 대구중학교앞에는 미군과교전한 一대약七十명은 미군에게포로되였는데 이전투에서 미군一명은 사망하였다한다 그리고 이날반란에참가한 병사의수효는 약四、五백명에 달하리라하는바 그중 약三백五十명은 오후六시경까지에 포로되고 나머지백여명은 교외로 도주하였다는바 三일오전까지에 판명된피해는 다음과같다

△國軍戰死三名 △警察官殉職四名 重輕傷五名 △民間側男女學生重輕傷十餘名

軍紀隊를動員鎭壓
百五十名武裝을解除
一部는脫出後支署等을襲擊

國防部發表 지난二일하오二시경 대구(大邱)에있는국군제六연대내에서 총성이들리어 전시민은 혹종의 불상사의돌발이아닌가 전전긍긍하고있는중이라함은작보한바어니와 이에대하여 국방부보도과에서는 三일상오八시 현재로 전기연대내의 충돌사건의 전모급경위를다음과같이 발표하였다 여수(麗水)반란사건발생이후 각지부대는 비상대기중에있으며 군내에불순분자의 책동을 봉쇄적발하기위하여 특무기관의 맹렬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중으로 대구(大邱) 제六연대에서는 남노당계열의혐의가있는 사병(士兵)四十명을 구금취조한 결과 연대인사(人事)주임하사관곽(郭)모상사가 그주모자임이 판명되여二일대구지구군기대에서 주모자곽을 체포코저출장하였는데 곽의현총발사로인하여 군기대장교는 순직하였다 이에당황한곽은여수제十四연대반란군이습격하여왔다고 허위선전하여 병사를비상소집하는 한편 무기탄약을지급하여 전투준비를식혔다 이급보를접한 군기대장 부연대장미고문관등은 사태를수습하기위하여 군기병廿명을대동하고 연대에도착하자반란병의기관총사격을받어입영하지못하고 린군에있는 미군부대에까지 기어가서 확성기를통하여 곽등반도의모략임을 폭로하는훈시를하였으며 진상을안병사들은 즉시진압되고 一五十명의병사를무장해제식혔다 그런데 연대정보선임하사관 이정택(李정澤)등 상사는 반의(叛意)를품고 부하廿명을지휘하여 영외(營外)로 탈출하였으며 그길로칠곡(漆谷)군 동명(東明)가산(加山)등 경찰지서를 민간폭도二백명과 합세하여 습격한후 왜관(倭館)을지나 금천(金泉)에이르렀을때 대구제九연대금천파견중대에 포착되어 일망타진을당하였다 그리고 대구시내는 평온상태에있으며 현지부대는 사건수습에만전을기하고있다

叛亂事件犧牲者 遺家族에 救濟金

지난三十一일 국무회의에서는 관공서를위시하야 각단체 회사 은행등에서 이번반란사건희생자가족에대한 구제금을거출하기로 결정하였다는바 그표준은 다음과같다한다

△大統領及國務委員 一個月俸給 △一級—三級職員俸給의百分之三 △四級—七級職員 同三 △八級以下職員 同一

雲峰서包圍戰
智異山軍의鎭壓不遠

여수 순천등지에서 패한반란군은 방금백운산 지이산을목표로 도피중에있거니와 국군 제三련대는 지난一일새벽 행동을개시하여 운봉(雲峰)에 집결하여 동지구에침입한 김지회(金智會)이하 반군 五백六십명에한한 포위작전을개시하였는데 반군의 섬멸은 시간문제라하며 현재까지의전과는다음과같다 반군사망十五명포로五명 한편 반군은방금산내면(山內面)동면(東面)가흥면(往興面)등지에서도 출동하고있다하는데 이도현재교전중이며 국군의사기는 자못왕성하다고한다

回復에努力
錢社會部長官談

반란현지시찰겸 이재민과군경에대한 위문차광주에온전(錢)사회부장관은 一일상오十一시경 도청지사실에서 기자단과회견하고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전번구호반 의료반五十三명은 선발시키고 이번에각종교단체등 위문단이 내광할목적은 주로위문에 치중하고 국가적중대사태에비추어 모든것은 직접조사하여 근본대책을 강구키위한것이다 정부로서는 민심을안정시키고 조사결과를보아새로운예산을 세워원상회복에적극노력할것이다 전번의삼남지방수해 구제책으로는四억四천만원을긴급구호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재민가옥을 건축키위하여서도 三천만원의 예산이편성되었다 (光州合同)

金融機關에는 人命被害없다
金融派遣隊報告

금융단에서는 이번여수 순천사건으로야기된 금융동태를시찰코저 조선은행 업무부장등 선발대가현지에파견되었는데 동보고에 의하현지실정은다음과같다

一、여수금융기관관계직원과 가족의인명기구피해는 전연없고 향간에유포되어있는 여수조선은행미발행권의 금액탈취설도오오입、판명되었다 현금상실액은 三천五백五십만원이나 여수식산은행 상호은행 금융조합 우편국등의 전문은소실된모양이다

一、순천금융기관직원과 가족의인명피해도 없으며 점포도무사하였으나 현금 손해액은 一천五십만원정도이다

오늘라디오

밤 ▽七、三〇 야다 ▽七、四五 歌謠 ▽小說朗讀 ▽八、〇〇 放送學校 ▽九、三〇 時事解說

美國送油管에서 發火
家屋13棟全燒重輕傷九名

지난一일하오十시경인천(仁川)주안동(朱安洞) 제五十一미군부대앞의 신천김포간 휘발유 송유관에서 돌연발화하야 一『키로』에뻗하는 직선거리가 일순간에 불바다로변하였고 이로말미아마 부근가옥十三동과 정미소一동이 전소되고 한시간만에 진화하였는데 이화재로인하야 七명의 중상자와 二명의경상자를내게되였다한다 그런데이번 송유관화재사건은 행방후처음보는 화재라하며 진화에미군측 특별소방 기술원이 총동원하였었다 (仁川合同)

開天節奉祝式
서울運動場서 盛大擧行

작三일오전十시 서울운동장에서 서울시주최로개천절 봉축식을거행하였는데 이에각관공서 학생청년단체내빈및 동민다수참석하에 먼저서울시행정관이석기(李錫基)씨 사회의 선언에이어 서울시장의식사와 감찰위원장 정인보(鄭寅普)씨의 경축사가있은후 윤(尹)내무장관의 만세三창으로 오전十一시반에끝맺이였다

餘生을海運에
申性模氏歸國第一聲

【仁川서趙昌濂特派員發】 우리조선 해운계의 지보(至寶) 카푸텐 신성모(申性模)씨는 기보한바와같이 二十六년만에 감격의 귀국을하기로 되였는데 동씨는 지난十월十一일인도 봄베(孟買)를 떠나향항을거처 작三일영국선호남호(湖南號=三千五百噸)로인천에 입항검역등을마치고오후二시十분인천제一부두에국무총리대리손(孫)해군총사령관 장남 명구(明求)씨등의영접을받으며 상륙하여자동차로서울을향하면서귀국소감을다음과같이말하였다 『二十六년만이다 국무총리의조전으로 귀국하였는데 아무것도모르는 나로서는 여생을오르지 조국해운에바치겠다 남선반란군사건은『정가풀』에서 외지(外紙)로 알었는데 참유감이다 (사진은 동씨 상륙광경)

忠武公碑還座
右水營서落成式

【蔡訓秉特派員發】 이충무공의전첩을 기념하기위하여 오량해전고적지인(鳴梁海戰)인 전이 해남군문내면우수영에세웠든 대전첩비각을 왜적남 천거하여 미선의행방이묘연하든바 해방후서울박물관창고에 방치되여있는것을 발견하여 이를우수영에터로환좌하고저 지방유지의발기로『李忠武公遺蹟復舊期成會』를 조직하여 그환좌공사에힘써 오든바 이번드디어준공되어 금三일개천가절을택하여 우수영남장대(南壯臺)에서리식을 거행한다고한다

暴徒40名射殺
濟州涯月大靜서

제주전역에결처 작전중이든 국군부대는 북제주군관내한 十월廿八일미명 한림(翰林)외도(外都)방면에서 행동을개시하야 애월면一대의 무장폭도 소위 애월(涯月)대정(大靜)양지부원 약백명을고성리부근에서 완전포위하야 철저히 격멸하였는데 이는 현제주도사태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큰의의를갖었으며 그전과는다음과같다 (一)애월지부장급 대정지부장등 九명사살 (二)무장폭도卅一명사살 (三)포로廿명 (四)무기탄약 피복기타 폭도용품 비밀서류一채압수 또한 이전투에서 국군측의 손해는없으며 계속작전중에있다 【濟州合同】

民保團과警察
聯合査閱式

三일오전十一시반 개천절경축대회식을 끝마치고 앞서각동회에서 결성된민보단과 경찰연합 약一만五천명의 사열식(査閱式)이있었는데 김(金)수도청장사열관을 비롯하야 내빈으로『편』소장과 윤(尹)장관의시열이있은다음 윤(尹)장관의고사(告辭)와 수도청장훈시에이어 내빈축사로 이인(李仁)법무장관임(任)상공장관등의 축사가있었다 곳이여서 분열식과아울러 가두행진이있었다

新刊紹介

◇京電 第二號 京城電氣株式會社發行 非賣品

光武新聞紙法適用은
反歷史的措置
言論三團體共同抗議文 (下)

四、歷史的惡法、憲法蹂躪

民主主義共和國인 大韓民國憲法의 明文에빗우어 光武新聞紙法의 存續有効란反歷史的이오 憲法違反임은 또한누구나 否認치못할것이다

첫째 法이誕生되는源泉에서부터 『己未三一運動』의精神을 繼承한 獨立國家의 國民主權主義와 國民의『自由 平等과創意의尊重保障』을約束한 民國憲法의前文과 總綱앞에光武新聞紙法은 제아무리無智蒙昧하다하더라도 敢히法의탈(假面)을쓰고 나올厭恥를갖일수없는것이다 或은 憲法第十三條에『모든國民은 法律에 依하지아니하고 言論 出版 集會結社의自由를 制限받지않는다』고한것을『法律에依해서만—自由를 갖일수있다』는뜻이 解釋한다면그는千萬不當하다 이條項은 國民의 言論自由를全面的으로 保障한것이로되萬一制限받는다면一部特定事項에限할것임으로말하는것이決코 어떤法律이容許하는範圍內에서 言論自由가保障됨은아닌것이다

憲法은이테까지나 國民의言論界 自由保障에積極的인것이다 또第百條에는『現行法令은 이憲法에抵觸되지아니하는限、効力을갖인다』고하야 憲法에抵觸되는것은 이미法으로써存續치못하는것을 알것이다 더구나第二十八條에는『憲法에 列擧치아니한理由』로써『모든自由와權利가輕視되지아니한다』는것까지 힘있게主張하고있거든 憲法에서 容納될수없는法아닌法이 어떻게해서憲法이保障한 國民의神聖한自由와權利를 抑壓하며또罰할수있을까 그리고光武新聞紙法은 司法權을行政權에從屬시키고있다 統監(行政權)이자 곧立法者로서 專制强權의權化이었든터이니 司法權의獨立이란 생각해볼餘地도없였음을알수있다 當時의立法이란 오히려無法의擴大이였다고함이 마땅할것이다 그러나 오늘大韓民國에있어서는 司法權에對한行政權의優越이나 그優先的임을있을수없다 光武新聞紙法의獨樹란곳 國家構造의基本要件인三權의分立 均衡司法獨立을 破壞侵害를말하는것이다 더구나立法府(國會)가國民代表機關으로서 嚴然히存在하는以上 國民의自由와權利를無制限抑壓하는 惡法을政府의專斷에매낄수는없다 그것조차違憲이요 不法인것이다 光武新聞紙法도 그러려니와 新聞紙法草案이란것이또한그런體制임에 놀라지않을수없다

五、新聞의自由와 責任

言論、出版의自由의集中的機能을갖인新聞은 新聞化하는世界 世界가新聞化하는 現世의社會的 自己位置를明確히 認識하면서不斷히新聞自身의倫理化에努力을애껴서 않될것이다 報道와批判의自由는 우리의歷史와良心을代辯하면서民族과國家의 前途에忠誠을다할것이다 奴隷生活四十年에서 그렇고그리웟든自由는 모든自由에 앞서는政治的自由이었고 다시政治的自由獲得에 앞서는것은言論自由이었다言論自由는 우리民族의良心의武器오 歷史의尖兵習을 踊信한다 어찌新聞에限하야解放以後政治勢力의分散對立分裂의疲困狀態에서 建設的統一綜合의大道를찾고混亂가운데 헤매이는民衆의大局的自覺과 團合의心的通路를開拓할길은 우리自身이啓蒙訓練組織에보다더注力하여야할것을 痛感하여 그들의言論陣自體의微弱과言論自由의不自由한環境의制約을먼저 政府의無經綸한彈壓에서부터 痛切히느끼는점이다 오늘이때야말로 言論自由가全角民에서 全國能을發揮케하여官과民、國體와國體、中央과地方이서로숨김없는率直한告白에서 和親의本流로大同團結하는가장큰 힘이되도록한 그때가아닐것인가 이에 우리가言論自由를極口主張하야 모든制限과抑壓에抗拒코저 한다고해서 決코一切의法律에서自由일것을 提唱하는것은아니다 一切의行政 一切의 政略政策에서 自由일것을말하는 것이니 그制限은行政官의手下에서 가아니고 法앞에서 裁判에依하야 公正한制限과制裁를받을것뿐 裁判官은또한決코行政上의策略이나 政治上政略에左右되여서는않되는것이다 우리는어데까지나言論의自由가 行政官即어떤執權黨派의 意思에左右되지않게되므로써 國家와國民의『安全과自由와幸福』이確保될것을믿는바이다行政權의專橫獨裁가그權限의擴大와 正比例함은東西古今의同斷임을알어야할것이다

(二面에서續)

和順郡 長興郡 [illegible] 靈岩郡 務安郡 羅州郡 咸平郡 靈光郡 長城郡 莞島郡 珍島郡

朴珉基 李[illegible] 梁斗承 李升煥 金俊淵 鄭準周 郭尹大 朴伏圭 金東錫 李英彩 鄭[illegible] [illegible]

民族公論

十一月號 定價百圓

祖國의危機……金弘一將軍

一民主義提唱하노라…李承晩

獨立前夜에 사라진 두巨星 故古下·夢陽 家庭訪問記

◇◇政經研究會와木曜會 大同靑年團과韓民黨

◇◇民獨黨大學脫黨의裏面 申翼熙氏合黨離脫의原因

◇中國政界의新星 蔣介石氏長男 蔣經國은 어떤人物?

◇敗戰日本의形相

◇◇東條、畑、小磯大將等의家庭實情 東京三井屋上에서亂舞하는倭男倭女

◇나의美國視察記…白樂濬

◇마ー샬플랜의實績 …歐洲復興計畫과英國의現實…呂世基

◇新貿易政策의構成…李桂東

◇戰後世界貿易의動向…安經國

世界共産主義의動向…李民成

戰後美、英勞動運動의展望…朴日秉

◇美國標準勞動者의生活形便…徐記者

◇日人「瀨戶」等의行狀密探記

◇文化優는 監督의것인가?

◇近世民族形成의論理…崔文煥

(文藝)

◇閔妃殺害事件眞相記…洪曉民

◇◇最近의民謠 知新生 (詩)나무처럼…朴斗鎭

◇(小說)비 는구름장마다…許允碩

◇서울의由來 「花子」와「거지」

總販賣所 三八社 서울市太平路一街三二

◇◇民族公論 支局은約定書에依하여 書報滿載 注文하시압

◇支局大募集